

목포 화물선박 보험 가입 기피

화물감소 경영난 이유... 40% 불과 인명사고때 보상 못받아 대책 시급

목포지역 중·소형 화물선박 가운데 상당수가 '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선원들이 보상을 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지역 화물 선박 200여 척(20t급 이상) 가운데 선원보험에 가입한 선박

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80여 척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운조합 목포지부 화물선박 조합 측은 "조합에 가입한 65개 업체 145척 가운데 80척은 '조합보험'에 가입, 선원 인명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상태"라며 "그러나 조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65척

과, 조합 소속이 아닌 화물선 대다수는 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은 모든 화물선박들의 선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물동량 감소로 선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수 선주들이 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선원보험 미가입 선주들이 출항 때 해양수산청에 선원 승선신고를 기피하게 돼 해양 인명사고 발생시 보상은 커녕 승선한 선원들의 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구급 30일 진도군 지산면 저도 근해에서 무보험, 무신고로 출항했다가 전복,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선박사고의 경우 선원들에 대한 보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신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총 207건의 선박 사고 중 화물선박은 19척이며,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11명과 중상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지역 화물선박은 100~150t급이 대부분으로, 모래와 사석을 포함 각종 건설자재와 일반잡화 등을 운반하고 있으며, 척당 평균 5~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무안 승달영농조합법인 화훼 전문생산단지 선정

농림부, 국화 재배시설자금 등 우선 지원

무안군 승달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12월 농림부 지정 화훼원에 전문생산 단지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국화 단지화에 성공한 승달영농조합법인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억여원을 들여 하우스 시설 현대화와 수경재배시설 3ha를 조성했다.

또 국화 수경재배 기술을 인근 시·군 농가에 보급, 품질 좋은 국화 생산을 늘리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엔화 하락으로 국내 시장 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을 꾸준히 개척, 제 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는 일본 수출업체와 200만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승달영농조합법인은 일반 재배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수출규격품과 품질고급화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케 됐다.

이번 전문생산단지 지정은 국화재배농가들의 노력과 무안군의 다양한 농정지원시책이 주요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안=이희원기자 whlee@

흑산홍어 풍어... 값 폭락

8kg 상품 한마리 35만원 전년보다 20만원 떨어져

겨울철 최고 별미로 손꼽히는 전남 신안의 특산물인 '흑산 홍어'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신안홍산수협은 "흑산도 해역에서 9척의 홍어잡이 어선이 3~4일 조업

에 적당 100여 마리의 홍어를 잡는 데 풍어로 8kg 이상 최상품 한 마리 가격이 35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원 이상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가격이 떨어진 것은 풍어에 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값싼 외국산 홍어 수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1척만 남았던 홍

어잡이 배가 9척으로 늘어난데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으로 어장 서식 환경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풍어를 이루고 있으나 소비 부진과 값싼 외국산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홍어 위판량은 2004년 56t(26억원), 2005년 62t(28억원)에서 2006년에는 133t(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신안군 주요 인프라 추진 서남권발전 지원단 발족

신안군은 지난 12일 기획예산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남권발전 추진지원단 발족식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 추진단에서 입안하는 제안사항은 군수 주재 회의를 통해 서남권 발전구상에 맞는 사업과 신안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남권발전 추진지원단은 앞으로 '연륙·연도교사업'을 비롯해 '흑산도 일주도로 확·포장' '식수원 개발사업' 등 주요 인프라사업과 '새천년대교 건설' '다이아몬드제도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광역교통 및 물류 시설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안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신안군은 중앙정부 사업에 지역 현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신용길 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장 취임

제 11대 (사)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장에 신용길(47·사진)씨가 취임했다.

신회장은 지난 11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산물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수산업경영인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압해면 출신인 신회장은 신안



군수협 대의원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지냈다.

수산업경영인 권익 옹호를 위해 지난 1983년 설립된 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는 현재 총 76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안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고흥남부 473-2340
구례 783-8111	진 도 543-0100	홍성남부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합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



사랑의 교회

목암동 사랑의 교회 다도해 관리사무소 건축문화상 수상

'제 1회 목포시 건축문화상' 수상작이 확정됐다.

목포시는 최근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은상에 목암동 목포 사랑의 교회와 다도해 관리사무소를, 동상에 목암동 바다와 어우러진 레스토랑과 원산동 우리 어린이 집을 각각 선정했다.

목포시 건축문화상은 격년제로 개최되며 올해는 금상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다도해 관리사무소



겨울철새 붉은머리 갈매기떼 장관

목포시 용해동 갯바위 앞 바다에 붉은 머리 갈매기떼가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 조류보호협회 전남지회 관계자는 "겨울철새인 붉은 머리 갈매기는 보통 200~300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으나 요즘 갯바위 갯벌에는 2천여 마리가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용해동 갯바위 앞 바다에 붉은 머리 갈매기떼가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 조류보호협회 전남지회 관계자는 "겨울철새인 붉은 머리 갈매기는 보통 200~300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으나 요즘 갯바위 갯벌에는 2천여 마리가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뉴스

목포보훈지청, 사랑나눔 실천

목포보훈지청(지청장 홍인표)은 지난 9일 직원들이 매달 월급의 0.1% 씩 기부해 모은 성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보훈가족과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을 위문했다.

홍인표 지청장은 직원 성금 50만원을 모아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공수훈자 유족 이모(75)씨 등 보훈가족 10명에게 쌀과 농협상품권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목포보훈지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한 나눔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함평군수에 보훈처장 감사패

홍인표 목포지청장

홍인표 목포보훈지청장은 지난 11일 함평군수를 방문,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석형 함평군수에게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군수는 일강 김철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석정 안후덕 선생 생가복원, 문장 3·1 독립만세운동 발상지인 낙영재 복원 등 다양한 보훈 관련 사업을 전개해 왔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끈끈한 사타구니 상쾌하게 탈출하세요"

기능성 남성 속옷 '무스더넨츠' 허트레깅

여름이 다가오면 남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끈끈한 속옷을 착용하면 사타구니가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며,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무스더넨츠' 허트레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남성 속옷입니다.

'무스더넨츠' 허트레깅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냄새를 방지하고, 습기를 흡수하여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남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끈끈한 속옷을 착용하면 사타구니가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며,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무스더넨츠' 허트레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남성 속옷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남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끈끈한 속옷을 착용하면 사타구니가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며,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무스더넨츠' 허트레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남성 속옷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남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끈끈한 속옷을 착용하면 사타구니가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며, 피부가 자극을 받습니다. '무스더넨츠' 허트레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남성 속옷입니다.

www.Musterneits.com 1577-2787

여자가 만든 "라지롬"

여성들이 만든 라지롬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여성용 속옷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라지롬 제품사들의 목소리

여성이 만든 라지롬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여성용 속옷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만든 라지롬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여성용 속옷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둥

불기둥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기둥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기둥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